

# 햇님 달님

...

김기영

대상

파란 판넬로 지어 놓은 양계장.

그리고 그 옆 좁고 낮은 조립주택이 우리 집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밥상은 닭들만큼이나 형편없었지요. 그래서인지 아버지는 깨지고 상처 난 달걀들을 주워 오시는 날이면 그렇게 휘파람을 부셨었나봐요. 낡은 프라이팬에 달걀을 부치시며

“이것은 햇님이에요!”

“이것은 달님이랑께”

라시며 싱글벙글 웃으셨던 것이 기억에 선명하답니다.

온전한 달걀이 아니었기에 노른자밖에 없던 달걀은 햇님.

하얀자만 많던 달걀을 아버지는 달님이라 부르셨지요.

어느 날 아버지는 달걀을 거둬 나오시다 넘어지셨지요. 달걀들이 바닥에 우수수 쏟아졌고 하필 양계장의 주인이 그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 먹기 위해 달걀을 일부러 깨뜨린 도둑놈이 되어 흠씬 두들겨 맞고 계신 아버지를 저는 멍뚱뚱 바라 보고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어렵פות이 그러다 확실히 알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저보다 몸만 클 뿐. 어른은 아닐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고작 초등학교 2학년이었는데 말입니다.

아버지가 또 매질을 당하던 어느 날.

두어 달에 한 번즈음 들르시던 이모할머니가 그 처참한 광경을 보시고야 말았지요. 잠시 후 요란한 소리를 내며 경찰차들이 닭장으로 들어섰고 저는 그 날밤 이장님댁에서 잠을 청해야만 했었습니다.

며칠 뒤.

저는 이모할머니가 사주신 반짝이는 에나멜 구두를 신고 보육원이란 곳에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가 너무도 보고 싶었지만 안부를 물어볼 곳도 전화를 할 곳도 없었습니다. 더 이상은 어지럽기까지 했던 닭똥 냄새를 맡지 않아도 되었고 식판에 밥과 반찬도 종류별로 담아 맘껏 먹을 수 있었지만 그 어떤것도 즐겁지는 아니했습니다.

때로의 구타와 때때로의 학대에도 갈 곳 없던 저는 10여년을 그 곳에서 그냥저냥 버텨냈습니다.

그리 넘들처럼 대학을 졸업하고 취업도 하게 되었지요. 착한 남자를 만나 결혼을 앞두게 되었고 그는 유일한 혈육인 아버지를 찾을 방법이 있을 거라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지금처럼 고아로 남겠다 이야

기 하고 말았지요. 결혼을 완강히 반대하시던 시어머님 앞에 연락이 끊긴 지적장애인인 아버지가 있다는 사실을 알린다는 것은 못된 딸에게는 모질만큼 두려운 일이었으니까요.

제 아이를 낳던 날.

스무 시간이 넘는 온 몸이 부서질 듯한 산고 속에도 자꾸만 아버지가 떠올랐습니다. 저를 업어 주시던 당신의 따스했던 등이 저를 보며 웃어 주시던 당신의 순박했던 얼굴이 아버지의 신난 휘파람 소리가 들려 오는 것 같았더랬지요.

백일을 갓 넘긴 아이를 들쳐 업고 아버지를 찾아 나섰지요. 당신은 한적한 요양원에 모셔져 계셨습니다. 백발이 되어버리신 아버지 앞에 저는 울고 있었지만 아버지는 20년 전과 똑같은 미소를 보내주셨습니다. 인지능력이 많이 떨어져 계시고 특히 식탐이 심해지셔 폭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는 간호선생님의 당부에도 저는 그저 맛있고 푸짐한 음식을 대접해 드리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한사코 근처의 허름한 중국집에 들어가자 하셨지요.

그 집의 간짜장이 기가 막히게 맛있다면.

이욕고 나왔던 간짜장 두그릇.

“아부지 것은 햇님이에요. 이것도 같이 올름 무라!”

제 간짜장 대접에 당신 뒤편 달걀 프라이까지 올려 주시던 아버지. 저는 끝내 끼이끼이 목을 놓아 울고 말았지요. 제 등 뒤에 업혀 있던 당신의 갓난쟁이 손자도 저를 따라 울고야 말았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자주 당신이 계신 곳에 들렀었지요. 따스한 스웨터를 달콤한 간식거리를 한 끼의 식사를 아버지와 함께 할 수 있음에 행복했습니다. 그리 몇 년 후 당신의 장례를 제 손으로 치뤄 드릴 수 있음에 더 할나위 없이 감사했었지요.

아홉 살의 지능에 평생 간혀 사셨던 아버지의 햇님은 달님은 바로 저였다는 것을 저는 이제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의 유일한 삶의 이력이자 세상의 전부였다는 사실을 당신이 저 멀리 떠난 뒤에야 가슴 깊이 깨달아 갑니다.

아버지! 그저 그냥 나의 아버지!

햇님이 떠오르면 당신과의 기억이 떠오릅니다.

달님이 밤하늘을 수 놓으면 당신과의 추억을 새겨 봅니다.

당신은 여전히 햇님 달님을 품고 있는 청명한 하늘입니다.



# 용곤대

...

김가연



나와 내동생과 소 한 마리  
그리고 용곤대

할아버지~  
어디가요?  
소 밥주러 가요?

아무말씀도 없는 그 뒷모습.  
커~어다란 소뒤탄을  
쫄래쫄래

부림면 낙동강처럼  
큰 강이 흐르고  
뛰어놀던 우리모습

한참 지켜보시던 할아버지  
한참 뛰어놀던 우리에게  
이제 너네는 집으로 가라는 한마디

할아버지~  
집에 같이 가야지 어디가요?

할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없이  
오른손으론 들어가라는 신호  
왼손엔 우직한 소 한 마리.

강가엔 돛단배 한 척.

할아버지 살아생전에도 말씀하나 없으시더니  
살아생전에도 소만 챙기는 듯 하더니

떠나시던 날도 말씀하나 없이  
우리 둘 모습 한참 바라보시더니

말없이 돌려보내시더니

그렇게 소와 함께  
강물따라 안개따라  
저멀리 떠나버리셨다.

## 작품설명

할아버지께서 살아생전 존함이 김자 용자 곤자(김용곤)입니다.

요즘 20대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조언으로 들리고 가슴에 와닿는 이야기를 해주면 어른으로 느껴지고, 자기 할 말만 하고 잔소리로 느껴지게 말하면 곤대라고 부른다구요.

저에게 할아버지는 살아생전 말씀도 많이 아끼셨고, 떠나시는 날도 뭐가 그렇게 급한지 21살 새벽 알바를 마치고 경주에 한 요양병원으로 가는 버스를 타는 순간, 아버지의 급한 전화가 왔습니다.

그렇게 제 얼굴도 보지 않으시고 떠나셨기 때문에 저에게는 곤대입니다.

용곤대 할아버지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 아버지! 담배랑 소주 사왔습니다.

...  
강정우



아버지!  
담배 사왔습니다.  
C1소주 사왔습니다. 맛동산도 사왔습니다.  
이거 뭐라고 그리 좋아하셨수  
내가 사오면, 드시기는 하는지요?  
내가 사온지는 아시는지요?  
소주 한잔 종이컵에 가득 따르는 일이, 뭐 그리 슬픈 일이라고 나는 아직도 질질 짜고 있네요. 사다놓은 담뱃수만큼 고박 울었네요.  
엄마는 오늘도 안따라왔수. 좀 잘하지 그랬수.  
가실 때, 수고했다 고맙다 한마디는 하고 가지지 그랬수.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말 주변이 없어서 정리가 안되거든 손이라도 짚 잡아주지 그랬수.  
근데 나도 똑같더라.  
내가 엄마한테 잘할게 라고 다짐했는데, 오늘 또 싸워버렸네?  
아니, 내가 엄마 말 듣기 싫다고 소리를 꽤 질러버렸수  
미안해 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이제는 이만 편안해지라고 말하지 않으려고, 아버지 이 곳에 남겨둘 때처럼, 어떨해. 이렇게 가면 어떻게냐고, 조금만 더 기다려주지 후회하며 오열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내 엄마, 당신에게만큼은 후회가 남지 않을거야 그렇게 다짐해놓고는 오늘 또 싸워버렸수.  
당신 떠나던 그 날.  
가슴이 아프다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돌로 콕 찍어버린 듯 숨막히고, 아린 것이란 것을 처음 알게된 그 날.  
나 그토록 이제는... 반드시... 라고 속으로 되뇌이며, 다짐 해놓고는 또 이릅니다.  
이렇게 또 퇴근해서 집에가면, 여전히, 아직도, 오늘도, 또 내일도 밥은 챙겨먹었냐고 물어볼 내 엄마에게 나는 왜 이토록 후회할 일을 매번 반복하고 있을까요?

나 하나 잘되어라고, 나 하나 하고싶은 것 하면서 살라고, 선원이라는 이름으로 망망대해를 떠돌아 다니며, 그렇게 고생했는데, 난 아버지 아프고 나서야, 숨을 헐떡거리며 버겁게 따라오는 꼴이 되고 나서야, 당신 모시고, 어디 놀러갈지 뒤늦게 고민해버렸네요.  
그렇게 몇 번 모시지도 못하고, 떠나 보내 버린 날 후회하고 있네요.  
두 아들 데리고는 하루가 멀다하고 봄이면 봄이라고 미나리 먹자 청

도가고, 대게 싸다하면 대게 먹이러 수산시장 가는 부지런한 내 눈에, 왜 그 때는 아버지가 보이지 않았을까?  
그런데 아버지  
어느새, 나는 꿈이 없네요?  
정확하게는 내 꿈을 묻는 사람이 혹시 있으면, 나는 잠시 골똘히 생각해보더니 첫 째에게 무엇을 해줄지, 둘 째에게는 무엇을 해줄지, 그 다음엔 아내에게 무엇을 해줄지, 그리고는 마지막으로 엄마의 고향으로 꼭 한번 휴가 모시고 갈 것이다 정도가 다였어요.  
결국, 나를 위해서는 없네요?  
아버지도 그랬어요? 외롭거나 쓸쓸하지 않았어요?  
그런 아버지를 응원하며, 이제야 아버지랑 편 먹었는데, 이 성질 더러운 아들 등에 업고, 당신 좋아하는 대장놀이 좀 하시지, 뭐 그리 초라하게 가버렸수... 아버지 아무리 성질 부러도 호호 할만큼 이제는 내 마음 다 자라 있었는데 말이우.  
나는 아직도 아버지라는 말에 무덤덤해질 채비가 안되었나 봅니다.  
아버지 라는 말만 들어도 이내 먹먹해지더니, 금새 눈가가 습해집니다.  
나 이제야 가장이 되어 가는 중인데, 내 꿈에 찾아와 내 아들 기특하다고 한번 말해주면 안 됩니까?  
하기사 아버지가 언제 칭찬을 해줘본 적 있다고 말이우.  
그냥 보고싶다 말하기 쑥스러워서 괜한 핑계를 갖다대어 봅니다.

아버지! 혹시나 엄마 꿈에 찾아가시거들랑 맛있다는 말도, 고맙다는 말도 한번 할줄 모르는 아버지를 똑똥아버린, 멋대거리 없고, 무드라곤 모르는 나를 대신해서 느그 아들 맘 그게 아니라고, 진짜 고맙게 생각하더라, 진짜 사랑한다 하더라 전해줄래요?



# 사랑하는 아버지께

...

## 양성파


 우수

오랜만에 연필을 깎았습니다.

이순의 나이에 새롭게 연필스케치를 배우기로 했습니다. 사람의 수고를 덜어주는 연필깎기라는 훌륭한 기계가 있지만 연필심의 길이를 길게 해야 해서 어쩔 수 없이 손으로 연필을 깎았습니다. 그러다 제게 처음 연필 깎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우리가 쓰고 남은 몽당연필을 볼펜껍질에 끼워 귀에 꽂고 다니셨지요. 그 연필로 메모하고 달력 뒷장에 알지 못하는 한자들을 쓰기도 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허름한 집 한 귀퉁이에 딸려있던 작은 창고에서 몇 안 되는 일꾼들과 여러 가지 가방을 만들어 팔곤 하셨던 아버지, 일찍 홀로 된 할머니를 모시고 4남매 가장 노릇에 그토록 하고 싶어 했던 학업을 중단하고 생활전선에 뛰어들고 싶었던 아버지. 아무리 늦은 시간이라도 저희들의 연필을 손수 깎아 주시며 그 연필로 아버지가 끝내지 못한 공부의 한을 풀어주시기를 바라셨지요.

하나뿐인 아들이 운동을 하겠다고 선언했을 때 절망하시던 아버지 모습에 그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드리기 위해 열심히 공부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 딸들. 매학기 다섯 명의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숨가빠 하셨을 당신을 생각하면 지금까지도 가슴이 아립니다. 늦은 시간 미싱 소리가 행여 공부에 방해될까봐 낮에 미싱 일을 마치고 재단 이랑 잡다한 일들을 바늘에 찔리고 칼에 베인 손으로 늦은 시간까지 일하시며 공부하는 저희 모습을 흐뭇하게 지켜보셨습니다. 그렇게 애지중지 키운 자식들이 각자의 짝을 찾아 새로운 생활을 시작하고 아버지 얼굴에도 활짝 웃음이 피었던 것도 잠시 든든한 맘사위가 암으로 세상을 떠나던 날 아버지는 얼마나 큰 통곡을 하셨던지요. 설상가상으로 저마저 남편과의 불화로 아버지를 힘들게 하며 오히려 아버지 성실함을, 가족만 보고 열심히 살아온 아버지에게 저는 결코 해서는 안 될 모진 말을 했었습니다. 아버지가 조금 흐트러지게 사는 모습을 보여줬더라면 미리 겪어봐서 이 고통을 이길 수 있었을 거라는 너무도 터무니없었던 참으로 부끄러운 투정을 했던 저는 아무래도 당신 딸이 될 자격이 없다고 해야겠습니다.

아버지 저를 용서하세요.

그 모진 말을 듣고도 아버지는 저를 위로 했었지요. 시간이 지나가면 해결 될 일이라고 세상 남자 대부분이 한번쯤은 그러한다고 그러니 용서하라고 큰 사위를 그렇게 보내고 아버지는 새롭게 낚시를 시작하셨습니다. 저는 그것이 아버지가 심심해서 시작한 취미활동인 줄 알았습니다. 물 맑고 좋은 곳에서 몇날 며칠 붕어를 낚아 올리는 것이 사위들에게 몸에 좋다는 붕어즙을 해주기 위한 것이라는 걸 알았습니다. 큰 사위의 부재가 아버지에게는 큰 충격으로 남아 다시는 그런 일이 되풀이 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 끊임없이 사위들의 건강을 챙기는 그 깊은 뜻을 늦게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그 큰 사랑은 평생 제가 갚지 못할 빛으로 남았습니다. 아버지는 무엇이든 아낌없이 좋다는 것은 다 제게 보내주는데 저는 일년에 몇 번 있는 명절, 생일 어버이날 때 마다 제 형편 고려해서 때로는 시댁에 먼저 보내다 보면 언제나 아버지는 뒷전에 겨우 몇 폰 보내면서 생색만 내기도 했습니다. 그저 좀 섭섭해도 아버지는 저를 이해하리라고 저편한대로 함부로 생각해 버린 것이지요.

큰 애 초등학교 입학할 때 아버지께서 보내주셨던 축의금과 함께 필통 속에 가지런히 들어있던 잘 깎여진 연필들. 저는 그 선물을 받고 얼마나 울었던지요. 뒤늦게 아버지에게 조금이라도 효도 하려고 하니 이제 제 결혼 아버지가 계시지 않네요. 세월이 흐를수록 아버지께 대한 그리움이 더 강해집니다. 아버지 사무치게 보고 싶은 지금 저절로 흘러내리는 눈물을 감당할 수 없네요. 아버지는 모든 일을 열심히 하고 시작한 일은 꼭 매듭짓기를 바라셨지요. 이제 늦깎이 미술 학도가 되어 새로운 일에 도전해봅니다. 늘 눈앞에 아른거리던 아버지 낚시 하던 모습 잘 그래서 다음에 아버지에게 갈 때 가져갈게요. 그 그림 보시면 아버지는 못 그랬어도 분명 멋지다 하시겠지요. 영천호국원에 있던 당신 친구들 곁으로 간다고 심심하지 않을 거라고 엄마를 위로 하셨던 아버지. 평생 고생하였던 육신 그곳에서나마 편히 쉬시길 바라요. 아버지 엄마랑 곧 뵈러 갈게요. 당신의 둘째 딸이 아버지에게 사랑을 바칩니다.

# 엄마 품에 안겨 볼 터진 꽃잎처럼

...  
정영일

우수

엄마, 새삼스레 엄마 이름을 불러요.

엄마가 떠난 지 마흔 해가 지났고, 저도 일흔 살이 되었어요. 엄마 무덤에 돋은 잔디를 깎고 명절 때마다 새 꽃으로 단장한 세월이 이렇게 무심하게 흘렀어요.

엄마, 남들은 나를 노인으로 바라봐요. 그렇죠, 노인 맞아요. 지금 아무리 노인이라 해도 엄마 이름을 부를 때면 그냥 아기가 되어 버려요. 아직도 꿈속에서 엄마를 찾으면 엄마는 “오 - 내 아들 -” 하면서 달려와 안아주어요.

엄마, 지금은 엄마가 옛날처럼 꿈속에서 자주 나타나지는 않아요. 그것이 조금 슬프기는 해요. ‘내가 어른이 되었기 때문일 거야.’라고 생각은 하지만 나는 꿈속에서 만나는 엄마가 너무 좋아요.

엄마, 꿈속에서 엄마를 만나고 잠에서 깨면 꼭 아쉬운 게 있어요. 꿈속에서 엄마의 시간은 언제나 옛날 그 모습이고 옛날 그 시간에 머물러 있어요. 꿈속이라도 나는 엄마가 저승 사람이란 걸 안다면 물어볼 말이 너무 많은데 말이죠.

엄마, 엄마의 영혼은 자유로우니까 어쩌면 내가 쓰는 이 글을 읽을 수도 있겠네요. 먼저 물어보고 싶은 것이 아버지를 만났는지 궁금해요. 엄마보다 먼저 하늘나라로 가서서 깊은 산골짜기 고향의 선산에 묻힌 아버지의 영혼이 엄마를 기다리고 있었는지 그게 궁금해요.

엄마의 육신은 자식들이 모여 사는 이곳 도시의 공원묘지에 있으니까 왠지 마음으로 가까이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아버지의 육신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마음이 쓰여요. 엄마가 돌아가시고 나서 가족 친지들이 모여 엄마의 육신을 아버지와 합장해야 한다고 말했을 때, 큰형님이 반대했어요.

돌아가신 분의 영혼이 자유로운데 어디에 있는 무슨 상관있냐고요. 아버지는 어쩔 수 없이 선산 깊은 산골짜기에 묻혔더라도 엄마는 가까이 모셔야 한 번이라도 더 찾아갈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런 큰형님의 의견에 저도 찬성했어요.

엄마, 그런 큰형님이 아흔 살을 넘겼고, 지금은 노인 요양병원에서 지내요. 기력이 떨어지고 음식을 섭취할 수 없을 정도로 몸이 허약해졌어요. 큰형님을 만나는 일도 쉽지 않아요. 병원에서는 환자 보호를 위해서 외부인의 방문을 최대한 절제시키고 있어요. 다섯 형제의 맘이로 태어나 험난한 세상을 헤치면서 부모를 모시고 동생들의 학비를 마련해 준 큰형님이 이제는 얼굴도 모르는 요양사의 몸에 의탁해서 하루하루를 지내고 있어요.

엄마, 슬픈 소식이 하나 더 있어요. 미국에서 사는 둘째 형님이 돌아가셨어요. 엄마를 미국에 초청해서 한 달 동안 지내셨잖아요. 둘째

형님에게서 내 결혼식에 쓸 다이아몬드를 받아오셔서 얼마나 내게 자랑하셨어요? 그뿐 아니에요. 형님이 돌아가시고 두 해 뒤에는 둘째 형수님도 돌아가셨어요. 슬픔이 슬픔에게 꼬리를 붙인 격이에요.

엄마, 이모는 만나보셨어요? 지난해 이모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이모는 살아서도 엄마 옆에 꼭 붙어 있었는데 죽어서도 엄마의 자리가 가까이 모셨어요. 엄마 곁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않아요. 이 세상에 일어난 많은 일들은 이모에게 전해 들으세요. 이모는 백 살을 넘겼는데 마지막 임종까지는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이모를 만나시면 꼭 안아주시고 이 세상 서러웠던 일들에 대해 많이 위로해 주세요.

엄마, 세상에는 많은 꽃밭이 있어요. 사람들은 그 꽃밭을 가꾸면서 살아요. 꽃밭에는 주인이 있고 주인은 꽃을 보호해요. 그 꽃밭이 가족인 것 같아요. 꽃들은 주인의 보살핌으로 자라고 예뻐져요. 그렇다면 우리는 엄마의 예쁘게 자란 꽃들이지요. 그런데 세월은 모든 것을 바꾸어 놓아요.

지금 엄마의 꽃밭에는 주인이 없어요. 그리고 꽃들이 점점 사라져가요. 엄마의 품 안에서 올망졸망 자라던 꽃이 이제는 하나둘 엄마를 따라 떠나고 있어요. ‘세월 앞에 장사 없다.’라는 말처럼 누구도 세월을 거슬러 갈 수는 없나 봐요. 삶과 죽음의 차이가 금 하나 그은 것 같아요. 이쪽과 저쪽, 저쪽과 이쪽, 서로 다른 세상에서 그리워하며 사는 것인지도 몰라요.

엄마, 가끔 이런 상상을 해요. 내가 죽으면 엄마를 만날 수 있을까? 엄마가 날 마지막으로 본 것은 내 나이 서른쯤인데 엄마 마지막 모습처럼 노인이 된 날 보면 엄마는 어떤 생각이 들까 하고 상상해요. 겉모습이 어떤들 뭘 상관이에요. 엄마를 다시 만나면 그냥 엄마 품에 안겨서 울기만 할 텐데요.

엄마, 엄마를 만나는 그날이 언제가 될지는 몰라도 그날이 오면 별빛이 하얗게 멈춘 저세상에서 엄마 품에 안겨 볼 터진 꽃잎처럼 종알대다가 깊은 잠에 빠지고 싶어요. 이 세상 너무 고단했거든요.

엄마, 이곳은 긴 장마 끝에 몇 차례의 물난리를 겪고 이제는 띄약별이 내리쬐어요. 엄마의 무덤에 돌아난 풀도 뜨거운 햇살에 고개 숙이고 있겠네요. 엄마에게 편지를 쓰는 이 순간만큼은 행복해요. 아무런 걱정과 두려움도 없어요. 그냥 행복해요. 이만 펜을 놓을게요. 엄마도 긴 글 읽느라고 고생하셨는데 좀 쉬세요. 엄마, 잘 계세요. 사랑해요.

2023년 7월 27일  
못난 아들 영일 드림

# 나의 외할머니

...

김소연



입선

살아가면서 만나는 다양한 이별의 장면들이 있다. 애가 끓도록 아픈 작별, 아쉬움을 애써 숨긴 담담한 헤어짐, 조금은 후련한 돌아서는 발걸음. 수많은 사연을 가진 그 갖가지 이별의 찰나에 빠지지 않는 것은 더 많은 시간을 함께하지 못하고 더 사랑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아닐까 생각된다.

나의 외할머니께서는 5년이라는 긴 시간을 요양병원에서 보내셨다. 노인들에게 닥치는 큰 비극 중 한 가지라는 낙상사고를 당하신 이유였다. 서둘러 찾아본 그 분의 모습은 평소와 같이 굳건하셨지만, 주름진 얼굴 한 귀퉁이에는 앞으로의 시련을 예감하신 듯 불안함이 서려 있었다. 내 손을 꼭 잡으시며 “내 다 나으면 할매 집에 아기 데리고 놀러 오이라.”하신 말씀이 무색하게도 외할머니께서는 현대인의 마지막 안식처라는 요양병원에서 숨을 거두셨다. 다친 부위는 쉬이 낫지 않았고 오랜 기간을 자리에 누워만 계신 탓에 기력을 다하셨다. 시간이 갈수록 야위어 가시더니 끝내는 식음을 전폐하셨다. 안 좋은 일은 겹쳐 온다는 옛말처럼 코로나 바이러스가 창궐하여 그리도 사랑하시던 자식들의 얼굴마저 자주 볼 수 없으셨으니 그 아픔과 외로움의 크기를 짐작하기가 어렵다.

그녀는 설악은 살구처럼 어여쁘고 어린 스무 살 어느 봄날, 부모님의 뜻에 따라 처음 본 남자와 혼인을 하였다. 꼬장꼬장한 시어머니는 딸을 내리 넷 낳았다는 이유만으로 그녀에게 억울한 구박을 가했다. 가난이라는 굴레마저 힘든 삶으로 채찍질하듯 그녀를 밀어 넣었다. 계곡물이 얼어붙을 정도로 차디찬 산골 마을의 겨울날, 얼음을 깨부수며 빨래를 하다가 보면 손이 다 붙어 터져 피가 날 지경이었다고 회상하곤 하셨다. 그때마다 그 시절로 함께 돌아가 여리고 작은 등을 안아주고 싶은 마음이 일고는 하였다.

내 나이가 마흔을 넘어간 이후로 축하할 일보다는 함께 슬퍼할 소식을 자주 접하곤 한다. 장례식장이나 화장장, 추모 공원 등을 방문할 일도 가끔 있는데, 그곳에서 반드시 마주하게 되는 얼굴들이 있다. 떠나는 이를 부여잡고 싶은 마음에 액자를 끌어안고 통곡하는 사람, 목이 잠겨 나오지 않는 소리를 토해내며 자리에 주저앉은 사람, 조용히 눈물을 흘려보내는 사람,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들의 토닥임과 끌어안음. 내가 겪었던 이별이며 앞으로 또 겪어야 할 시련 앞에 자연스레 몸과 마음을 낮추게 된다. 외할머니를 보내드린 영락공원을 특히 나는 좋아한다.

눈물과 회한의 공간을 좋아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않을지는 모르나 그곳에 가면 나는 외할머니의 거친 손을 잡은 듯한 위로와 삶의 용기를 얻는다. 영락공원 입구를 지나면 오른쪽으로 영혼들의 꽃 덮은 안식처가 펼쳐진다. 외할머니를 떠나보내던 그 새벽에는 어스름

안개가 그 위를 포개고 있었는데, 이불을 덮어주듯 따스하게 새 친구를 반겨준다는 느낌이 들어 눈물을 거둬 훔쳤던 기억이 난다. 이승에서 닳고 지친 육신을 마지막 불꽃처럼 태워내고 끝내는 한 줌 재로 돌아가 작은 집에 자리를 잡게 되는 과정을 보며 귀하지 않은 목숨은 없고 내게 남은 시간 역시 아끼고 웃으며 살아야겠다는 다짐을 하였다.

내가 어린 시절, 외할머니께서는 바쁜 엄마를 대신하여 우리 남매를 돌봐주시곤 하셨다. 하루는 할머니를 따라 시장에 갔는데, 붐비고 복잡한 탓에 할머니께서는 우리 남매에게 생선가게 구석에 서 있기를 당부하고 바빠 장을 보러 떠나셨다. 어린 나이에 느끼기에는 꽤 긴 시간이 흘렀음에도 할머니께서 오지 않으시자, 오빠는 할머니를 찾아오겠다며 떠났고 나는 그만 울음이 터져버렸다. 생선가게 아저씨는 난감해하며 “애를 버리고 갔나, 경찰에 연락해야겠다.” 하였고 그 소리에 정신을 놓을 듯이 울기 시작하였다. 난리가 터진 것처럼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할 즈음 멀리서 오빠의 손을 잡아끌며 할머니께서 뛰어오셨다. “아이고 내 새끼, 아이고 내 새끼, 놀랐재. 미안하대이 미안하대이.” 하시며 나를 품에 안던 할머니의 목소리가 꿈인 듯, 영화 속 한 장면인 듯 기억에 남아 있다.

부산으로 이사를 오고 난 후, 외할머니의 네 딸과 아들은 모두 장성하여 자리를 잡았다. 그녀의 삶에도 심표처럼 숨 편히 쉴 날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였다. 절에도 다니시고 좋아하는 꽃도 가꾸시며 자식 키운 보람을 느끼던 그녀 생의 짧은 전성기라 할 수 있겠다. 그 시절, 안경 낀 눈가에 주름진 웃음을 자주 지으시던 할머니 얼굴이 참 그림다. 좋은 날과 안 좋은 날은 물결처럼 왔다 간다고 버릇처럼 말하던 그녀에게 고난의 파도가 다시 크게 닥쳤다. 외할아버지께서 말기 암 판정을 받으신 것이었다. 할아버지의 병시종과 병원비 걱정으로 그녀는 또 긴 고통의 시간을 감내해야 했다. 대학병원의 좁은 보호자 간이침대에 걸터앉아 창밖을 내다보시던 할머니는 무슨 생각을 하셨을까. 박복한 팔자에 대한 원망을 속으로 내뿜으셨을까,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닥치냐고 억울해하셨을까. 아니었을 것이다. 내가 아는 그 분께서는 “이만하니 다행이다. 감사한 일이다.” 하고 기도하고 계셨을 것이다.

김장철이 되면 할머니의 첫갈 냄새 풀풀 나는 김치가 그리워진다. 벌건 양념 가득 묻은 손으로 배추 한 장 주욱 찢어 굴 넣고 무채 넣고 돌돌 말아 한 입 가득 넣어주시던 할머니가 너무도 그림다. 살아계실 때 더 많이 찾아뵙지 못하고 사랑한다고 전하지 못한 것에 대한 후회가 남지만, 다시 만나게 되는 날 웃으며 달려가 안겨 열심히 살아냈다고 고할 수 있도록 오늘 하루를 열심히 살 것이다.

# 물고래선생님

...

## 류일복


 입선


가끔 고단한 삶에 취기가 거나하게 섞인 걸걸한 산울림 같은 목소리를 가만히 되뇌어 본다. 김성주 담임선생님께서 돌아가신 지 어언 35여 년을 훌쩍 넘긴 지금 나도 그 지천명의 나이에니 단풍잎처럼 불긋불긋한 그 모습이 떠오르면서 코허리가 시큰해지고 그리움은 선생님과 못다 한 취중야설로 마주 앉게 한다.

연변 고향 송선중학교 담임이었던 김성주선생님은 방과 후면 가끔 엇구수한 생선탕을 먹이고 싶다며 우리를 데리고 두만강 천렵에 나섰는데 은띠 강에서 은빛 투망은 정확하게 포물선을 그으면서 날아가 잠입하는 곳마다 팔뚝 같은 물고기들이 펄떡펄떡 뛰면서 그물에 딸려 올라온 했다. 그날은 선생님 덕에 냉이에 고추장을 풀어 넣은 생선국을 배불리 포식하게 되었고 그때라고 선생님께서는 호주머니에서 술병을 꺼내 물고기 안주에 맛깔스레 한잔하는 것이었다. 우리가 옆에서 군침이 꿀꺽 돌 지경으로 반근 술병을 굽 내고는 그 맛을 음미하는 듯 고개를 가웃하고 빈 술병을 들여다보는데 세상에서 술맛이 제일 좋은 듯한 기분을 주었다.

송어가 뛰니 망둥이도 뿔까, 매주가인 선생님은 우리 제자들에 대한 술 단속도 자별했다. 짐통처럼 무더운 어느 여름날 하교하던 길에서 애들하고 바윗돌 위에 빈 소주병을 엮어놓고 돌팔매치기 놀음을 하고 있었는데 암행어사처럼 선생님께서 나타났다. 그이는 험상궂은 얼굴로 나를 구석 쪽으로 밀어붙였다. “네 얼굴이 원숭이 엉덩이처럼 빨갱다.” 나는 선생님의 말씀이 농담인지 진담인지 몰라 어정쩡히 서 있기만 했다. “조그만 게 도둑술 먹었지?” 선생님의 음성이 한 옥타브 높아졌다. 나는 “아닌데요.” 기죽어 모기소리만 냈다.

선생님께서 “솔직하지 못해? 이 자숙아-” 꿀밤이라도 먹일 듯 주먹을 쳐들어 금시 나를 때릴 시늉을 했다. 이때 단팍 성호가 달려와 나를 궁지에서 꺼내주었다. “선생님, 개는 여름이면 얼굴이 여자애들처럼 빨갱게 타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제야 선생님께서는 손을 내리시더니 내 입 쪽에 코를 들이밀고 쿵쿵 냄새를 맡고는 “그래, 손동이 복이가 그럴 애가 아니지.” 하며 미안하다는 듯 머리를 쓸어주고는 돌아서서 “하라는 공부는 안 하고 다 큰 애들이 위험하게 뭘 술병에 돌팔매질이나?” 하면서 우리를 집으로 쫓아 보냈다.

한번은 고양이 손도 빌어쓴다는 추수 시기에 학교에서 학생들을 촌마을의 콩타작 작업에 동원했다. 3학년 학생들은 졸업학급이라고

돌보다 보니 아래 학급인 우리가 그 뒤편까지 떠안게 되었다. 이때문에 김선생님께서 교장님과 언쟁했다. 결국 우리도 졸업학급이 되면 그만큼 봐준다는 교장님의 설복에 선생님께서는 지고 말았다. 산더미 같은 콩타작은 오후부터 시작해서 저녁까지 계속되었는데 강골 바람이 가득한 매서운 산골 늦가을 날씨에 장갑 낀 손끝이 얼얼해질 정도로 시리고 티끌먼지까지 흩날렸다. 선생님께서는 콩 깎대기를 쳐내는 뒷정리를 했는데 머리부터 발끝까지 온통 먼지투성이었다. 그래도 선생님께서는 애들을 노래도 부르게 하고 같이 따라 부르기도 하면서 툼툼이 추임새처럼 우스개도 피워냈다. 나중에 선생님께서는 자신도 추워 견딜 수 없는지 돌아서더니 이과두주(二鍋頭酒) 술병을 꺼내어 게 눈 감추듯 두어 모금 마시는 것이었다. 일이 끝나자 당신 호주머니에서 돈을 꺼내더니 “오늘 추운데 너희들이 수고했다. 식당에 가서 뜨끈뜨끈한 국수 한 사발씩 사 먹어라.” 하면서 우리에게 건넸다. 추위에 잔뜩 움츠린 산새처럼 떠는 우리의 모습을 보는 것이 어쩔 가슴 알찌근했을 것이다.

들놀이 때면 선생님께서는 당신에게 욱먹고 매 맞은 학생들에게 밥보자기를 풀고 노랑게 구운 계란말이 한 조각, 살코기 한 점이라도 더 집어주었다. 출판이 벌어지면 술 한 잔을 걸치신 선생님께서는 연세와 어울리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엉덩이춤을 추며 선머슴들의 손을 잡아당겨 출판에 끌어들었다. 그럴 때면 애들은 물론 옆에서 응원하는 우리들까지 와 폭소를 터치는 한편으로는 막 눈시울이 뜨거워 났다.

마침내 20여 년간 임시교원이었던 선생님께서 교육국으로부터 정식교원으로 채용되게 된 기쁨을 안고 휴식 날 동료 선생님들과 함께 만취토록 술을 드셨다. 경운기에 앉아 돌아오던 중 선생님께서 그만 낙상했는데 공교롭게도 돌부리에 머릴 부딪쳐 그날로 50 초반의 가까운 나이에 숨을 거두었다.

온 맘으로 애들을 사랑하고 교육사업에 애면글면 천착하셨던 선생님께서 승격하신 그 기쁨이야말로 크나 컸으리라. 그러나 그 하루의 기쁨이 우리에게 영원한 슬픔을 안겨주었다.

선생님께서 떠난 영전에 이 글과 함께 생전에 그토록 좋아하셨던 소주도 찰찰 넘치게 부어 한잔 따라 올린다. 인정세태가 각박해지는 세월일수록 진국의 선생님 모습이 눈앞에 새록새록 선연해진다.

# 짧은 삶의 영웅

## 명 희 열

입선



아버지..  
당신이 세상을 등지신지가 어디 보자,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봄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벌써 45년이란 세월이 훌쩍 흘렀군요.  
초등학교 3학년 때 중풍으로 몸 저어 누우시면서 부터 세상을 떠나기 까지 8년 이란 긴 세월의 쓰라린 시간들이 시작되었죠.  
당신이 세상을 떠나실 때 당신 연세 43세입니다. 이제 제 나이도 올해로 65세가 되어 가는군요. 참! 세월은 허무하리만큼 빠르게 흘러가고 지나온 시간을 회상하게 합니다.  
아버지! 저는 결혼을 일찍 해서 결혼한 큰아들과 나이 터울이 조금 나는 딸과 막내아들을 두고 있습니다. 당신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손자들입니다. 그러나 당신 병수발 3년을 힘들어 자식들을 매몰차게 버리고 가출하신 어머니, 그리고 두 동생들의 어린 삶의 책임을 떠맡게 된 우리의 할머니, 그 무엇 하나 풍족한 게 없었고 그런 걸 감당하기에 장남으로서는 너무 어린 나이였죠. 당신은 사회생활과 가정으로서 35세 한창 젊은 나이에 병환으로 쓰러졌지만 우리 영문도 모른 채 당신의 고향으로 홀로 계시는 시골 할머니 집으로 당신과 우리 형제는 이사를 오게 되었죠. 조그만 밭농사를 지으며 살아야 했던 할머니와 우리 3형제는 하루하루의 삶이 힘들고 힘겹기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사 온 지 3년이 지나고 솔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무렵 가출한 당신의 부인은 다른 사람과 결혼하여 아이를 낳아 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무척 실망과 허무함을 느끼는 눈치였고 우리들도 허탈했습니다. 우리는 당신에게 애원했죠. 우리 3형제는 깨끗하게 잘 자라고 있으니 걱정 말고 병환이나 완치하시라고 용기를 드렸지요. 그리고 우리가 커서 당신을 보호해 드릴 때까지 살아만 계셔 달라고 저녁마다 둥근 달을 쳐다보며 울면서 기도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삶이 넉넉지 못한 우리는 학교를 마치고 돌아오면 할머니가 손수 일구 낸 밭에 나가 일을 하는 건 당연한 우리들의 일과였고 뉘이었습니다. 할머니와 함께 밭에 나가 깻잎을 따서 가까운 5일장에 내다 팔기도 했고 그 돈으로 당신 치료약과 생선을 구해다가 병구완에 정성을 쏟았죠. 그리고 당신을 위해 가마솥에 삶은 보리쌀을 깔고 가운데 흰쌀밥만 조금 넣어서 당신 밥상에 올려주시던 할머니! 할머니도 많은 연세에 힘드셨을 텐데 외아들 병수발에 더 할 나위 없이 힘들고 고달파 했지만 어린 손자들에게겐 약한 모습을 보이지는 않았지요. 할머니와 우리의 정성에 하늘도 감동하셨는지 당신 홀로 화장실을 스스로 다닐 수 있을 무렵이었습니다.  
할머니는 5일장에 나가시고 동생은 친구들과 염소 2마리를 풀 먹이러 나가고 없을 때였죠.  
나는 학교에서 돌아와 보니 집안에 당신이 보이질 않았습니다. 문지방에 세워 둔 지팡이가 없는걸 보아 얼른 부엌으로 가보았지만 점심은 드셨는지 그릇과 수저가 여기저기 널려 있었습니다. 혹시나 하여 아래채

에 있는 화장실로 급히 가보았습니다. 재래식 화장실 천정에 편하게 일 보시라고 새끼줄을 매달아 두었는데 줄을 잡고 일어서다 줄이 끊어져 그만 잣더미에 뒹굴어져 검둥이가 되어 있었지요. 저는 겨우 부추겨 마당으로 옮겨 몸을 깨끗이 씻어 드리고 방에 눕혔습니다. 놀라신 당신은 힘들어 보였고 아들 보기가 민망하였는지 어눌한 말투로 미안하다고 하셨습니다. 저도 놀란 가슴 달래느라 정신이 없었고 눈물이 솟아졌습니다. 서러움의 눈물이었고 가엾음의 눈물이었고 한없는 눈물이었습니다. 얼른 자라서 돈을 벌어 당신의 병을 치료해 드리겠노라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 이후로 당신의 모습은 많이 위축해 보였지만 정신은 아직 살아있었고 우리들을 향한 교육열은 대단했었죠. 당신은 나에게 어눌한 말투로 항상 주문을 하셨고 그후에 진학하여 기술을 익혀 취직해서 장남으로서 집안을 이끌고 나가라고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교단에 서서 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당신의 일방적인 행동이 야속하기만 했지만 저의 그런 생각은 사치였고 단지 꿈이었을 뿐이었습니다.  
봄이 시작되는 어느 연휴가 시작되는 날, 여느 때와 마찬가지로 학비를 조금 보태고자 마을 형님 소개로 연휴 기간에 공사 현장에서 벽돌 나르기 막노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오전 새참 후 쉬고 있는데 마을 형님이 8리 길을 달려와서는 너의 아버지가 쓰러졌다는 소식을 접하고 눈앞이 캄캄했고 현기증이 일어났지만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힘껏 달려 집에 도착하니 당신은 이미 숨을 거둔 뒤였습니다. 당신은 살아계신 것만 해도 우리들의 기둥이었고 영웅이었는데 우리 어떻게 살라고 야속하게도 우리 곁을 떠나셨나요. 이승의 끈을 놓지 않으려 오랫동안 참아 오신 당신은 떠나가는 길 몇 번씩이나 뒤돌아 보며 눈을 감지 않았겠지요. 노모와 새끼들 걱정에 이승을 떠날 준비가 되질 않은 발걸음을 원망하며 힘들게 가실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하늘나라에서 지금 어떻게 지내고 계신지요.  
여기는 40년이란 세월이 흘러 강산이 4번 바뀌었고 세상은 많이 변했습니다.  
당신의 큰아들 저는 당신의 뜻대로 기능인의 꿈을 가지고 엔지니어가 되었습니다. 중견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하며 기름 장갑에 기름때를 묻히며 기계와 싸우고 있었습니다. 이제는 퇴직하여 저도 60세 중반이 되어 제2의 삶을 잘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의 앞길을 훌륭하게 열어준 당신! 그리고 우리 형제들의 뒷바라지를 아낌없이 해주신 할머니께도 고마움을 전하며 살아생전에 제대로 효도 한번 못해 드린 불효자가 먼저 가신 두 분께 큰 절 올리며 용서를 빕니다. 편안히 아프지 않은 곳에서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열심히 잘 살겠습니다. 하늘에서 잘 지켜 봐주세요.

이승에서 큰 아들 올림





# 생의 마지막 문턱 너머 돌아가는 곳은

...  
이 글 썬

입선

코로나 시대도 이제 곧 저물 듯합니다. 함께 숨 쉬고자 내 숨을 굳게 잠갔던 마스크를 벗어던지며 마음 속 고통도 사라지기를 바랐건만, 상실은 오히려 장마구름처럼 부풀어 오릅니다.

서글픈 일이 많았습니다. 열렬한 안티백서였던 남동생이 가족을 위해겠다는 결단으로 백신을 맞고 돌아온 날, 제 친구는 백신 접종 후 쓰러진 고모의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수화기나마 붙잡은 채 친구의 울먹임을 다독일 수 있었던 것은, 제게도 그런 이별이 있었던 탓입니다.

할머니, 당신의 죽음을 기억합니다. 코로나바이러스 창궐로 이 사회의 모든 이들이 생존을 호소하던 때, 당신은 영면의 길을 떠났습니다. 그러나 인간에 대한 예의마저 상실되는 시대. 고인에 대한 정중한 작별 의식마저 허락되지 않는 시대에서 장남인 아버지는 방역 방침에 따라 임종마저 지키지 못했습니다. 저는 그날 온몸의 물이 다 빠져버릴 때까지 설움을 쏟아냈지요.

돌이켜보면 당신과 저는 그다지 가깝지 못했습니다. 할머니와 손녀란 기묘하게도, 세월이 쌓일수록 멀어지곤 하니깐요. 하지만 이상한 일입니다. 반목의 기억들은 새벽 아지랑이처럼 희미해지고, 당신의 다정함만 밤꽃 향기처럼 밀려듭니다.

10살도 채 되지 않았을 시절, 당신의 시골집에서 함께했던 나날들이 기억납니다. 오락실은커녕 슈퍼마켓조차 없는 시골마을은 펍 지루했지요. 저와 남동생을 할머니께 맡겨두고 불일을 보러 나가신 부모님을 기다리며, 마당에서 돌멩이 탑이나 쌓고 있었습니다. 바람 한 점 없던 날, 속삭이듯 움직이는 풀숲을 멍하니 보다 뱀과 눈이 마주쳤지요. 혼비백산하여 뒤로 발라당 넘어진 저와 얼어붙어 눈물만 뚝뚝 흘리는 남동생을 지키고자, 삽으로 뱀의 머리를 내리치던 당신이 기억납니다. 높은 탑에 갇힌 공주를 구해내는 동화 속 영웅처럼 할머니, 당신은 저와 남동생을 일으켰지요. 그날 이후로 저는 더 이상 벌레나 파충류 따위를 무서워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것들은 결코 저를 해칠 수 없으리라는 것을, 그 이후로도 몇 번이고 저를 구해줌으로써 꾸준히 알려주신 당신 덕분임을 압니다.

당신은 참 많은 것들로부터 저를 구해주셨습니다. 과자를 사 주겠다는 낯선 사람으로부터, 커다란 들개의 습격으로부터, 악몽으로부터. 든든한 벽이 되고, 우산이 되어준 할머니, 당신.

그러나 언제부턴가, 당신은 꿈속에서 헤매었지요. 햇병아리 성인이 되고 난 후 들려오는 당신의 이야기들은 모조리 풍문이었습니다. 이게 다 요물이라며 돈 다발을 호수에 던져버리셨다는 이야기, 웬 무당을 맹신하신다는 이야기는 막장 드라마 속 시할머니처럼 기묘했습니

다. 당신의 기행에 가슴을 광광 치는 어머니를 보며, 저도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왜 한 번도 궁금해하지 않았을까요. 할머니 당신의 마음속에 대체 언제부터, 괴로움이 타고르고 있었는지를. 당신을 마지막으로 보았을 때를 떠올립니다. 손주사위를 데리고 당신을 찾은 날, 당신께서는 드물게도 정정하셨습니다. 몸 상태가 극으로 치달아 저희 결혼식에도 못 오신 당신이었는데, 그날 당신의 육신에는 삽으로 뱀을 내리치던 기개가 그대로 살아있었습니다. 1시간도 안 되는 만남이었지만 아직도 남편은 당신의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손을 꼭 잡고는 우리 공주 잘 부탁하요, 거들 당부하시던 목소리가 먼 휘파람처럼 귓가를 스쳐온다고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입원한 당신과 우리의 사이를, 본 적 없던 전염병이 가로막았습니다. 그렇게 결국, 당신은 영영 세상 밖으로 나오지 못한 채 그곳에서 조용히 생을 떠났습니다.

아이의 동화책에 재미있는 상상이 등장합니다. 어금니로 까드득 물어 깨뜨린 알사탕 속 검을 씹고 불어 날려 보낸 풍선이, 그리운 사람의 목소리를 싣고 돌아오더군요. 주인공에게 다가온 목소리는 작고 하신 할머니였습니다. 저 역시 당신을 떠올렸지요. 이미 수개월을 까맣게 잊고 있던 그리움이 화산처럼 폭발하더니, 참 이상한 일이라고 여기면서요. 동화책 속 할머니는 “그리운 친구들을 만나 즐겁게 지내고 있다”며, “친구들과 사이좋게 지내고, 행복하라”며 아이를 다독였습니다. 당신이라면 제게 어떤 이야기를 해 줄까요.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 소녀 시절의 경박하리만치 크고 예쁜 웃음소리를 나눌까요.

귀신, 영혼, 환생, 내세, 천국... 저는 이런 것들을 굳게 믿습니다. 귀신이란 얼마나 달콤한 존재인지요. 존재 자체로 생과 사의 경계도 갈라놓을 수 없는 인연이 있음을 증명하지 않습니까. 죽음 이후에도 그리운 이들과의 재회가 가능하다는 것, 죽음 이후에도 그리운 이들의, 사랑스러운 이들의 생을 따스하게 지켜볼 수 있다는 것이, 그 얼마나... 연어를 떠올립니다. 물살을 거스르며 태어난 강으로 돌아가 수천 개의 알을 낳고 온몸이 찢긴 채 죽어간다는 연어의 이야기를 읽고 저는 참으로 슬퍼했습니다. 그러나 죽음은 항상 탄생과 함께 오지요. 죽음을 ‘돌아간다’고 표현하는 이유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영원한 이별이 아닌, 재회의 기다림. 당신은 어디로 돌아가셨나요. 살랑이며 여름철 더위를 달래주는 바람, 양산 없는 날 드리우는 구름 아래 그늘, 한 걸음 한 걸음을 포근히 감싸오는 흙 사이에 당신이 있었으면 합니다. 이 바람만으로도 세상을 더욱 귀하게 여길 수 있으리라는 생각이 드니까요.

# 할머니 사랑해요

## 이 쟁 태

입선

할머니

평생 오지 않았으면 하는 이별이 찾아온 지 벌써 9개월째예요. 이제는 적응했다고 생각했는데 글을 쓰니깐 다시 눈에서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제가 어릴 때부터 할머니께서 천국으로 떠나시기전까지도 언제나 안부를 물으시고 마지막에는 저와 부모님의 건강을 걱정해 주시던 할머니의 말씀이 기억나 저는 항상 건강하게 지내려고 하고 있어요.

할머니는 제가 전화할 때마다 최고의 손자라고 했지만 저는 아닌 것 같아요.

할머니와 한 통화를 많이 녹음해뒀었는데 지금 들어봐도 저는 할머니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거의 못했어요.

글로만 쓰면 1초도 걸리지 않는 말인데 쑥스럽다는 이유로 할머니가 전화 마지막에 늘 “손자 사랑해”라고 했을 때 “저도요”라고 밖에 말 못 했는지 너무 후회돼요.

할머니와 함께한 추억을 사진으로 남겼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것도 너무 아쉬워요.

할머니 집에 있던 저와 사촌 형, 누나 들의 돌사진만 몇 십 년 동안 올려져 있었는데, 왜 저는 할머니와의 행복했던 날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새롭게 올릴 생각을 못 했을까요.

할머니가 걱정할만한 말은 이제 그만해야겠죠?  
이제 할머니가 걱정 안 할만한 즐거운 이야기를 생각해 봐야겠어요  
편안하게 쉬려면 마음이 편해야 하잖아요?

아버지는 늘 산보를 다니면서 건강을 잘 챙기시고 있어요.  
할머니께서 평생 걱정하던 금연도 벌써 두 달째예요 정말 놀랍죠?  
그렇게 끊으라고 말씀하셔도 안 들었다고 들었는데 제가 결국은 해 냈답니다.

어머니는 말할 것도 없이 건강해요 딱하나 걱정인 건 외할머니가 최근에 몸이 안 좋아지셔서 돌보신다고 바쁘세요.

저는 할머니께서 걱정하실 수도 있지만 올해 초에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물론 죽을 정도로 심하진 않아도 여전히 치료를 받고 다니고 있어요  
그래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점점 좋아지고 있습니다 .

사고를 당해 입원했을 때도 할머니 생각이 많이 났어요.  
저에게 할머니는 제 고민과 걱정을 언제든지 털어놓을 수 있는 저에겐 하나뿐인 할머니거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할머니 집에 놀러 갔을 때가 생각나요.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집을 나가기 전에 할머니께선 “우리 손자 포옹 한번 해보자” 하셨죠.  
저도 기쁜 마음에 할머니하고 포옹했었는데.. 이젠 그때의 온기보다 쓸쓸하게 누워 계시던 할머니의 차가웠던 체온이 더 떠올라요.

할머니하고의 좋은 기억만 영원히 간직하고 싶은데 할머니와의 마지막 이별의 순간이 더 생생히 떠올라서 너무 슬퍼요.

만남이 있으면 이별도 온다지만 앞으로도 저에게 찾아올 많은 행복한 추억과 눈물 흘릴 만큼 힘든 기억들을 공유하고 싶은 할머니가 너무나도 그리네요.

할머니께서도 할아버지하고 당연히 잘 지내고 계시죠?  
오늘 제가 글로 적었으니깐 할머니가 읽으셨을 거라고 믿고 편안한 마음으로 꿈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할머니 사랑해요



# 비에 젖는 함흥식당

...

## 평 낙 민

입선



아버지, 민이에요.

‘함흥식당’이름부터 고리타분하고 멋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밋밋한 간판이지만 저에게는 가장 소중하답니다. 아버지를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에. 그래서 아침에 식당 문을 열 때도, 밤에 식당 문을 닫을 때도 한 번씩 올려다보곤 한답니다. 아버지께 인사를 드리는 것처럼.

“어서 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손님에게서 비 냄새가 묻어났어요. 얼핏 밖을 내다보니 어느새 아스팔트가 젖어 있었어요. 소리 없이 비가 내리고 있었어요. 아버지께서 홀연히 떠나셨던 9년 전, 그 날의 비처럼.....

“야야, 음식 장사하는 사람은 이문을 남기려고 하면 안 되는 거여. 그냥 내 손으로 만든 음식을 맛있게 먹어주는 사람이 있으면 고맙다고 생각해야해. 그러다 보면 돈도 따르는 거여. 그러니까 너도 주산 두드려 가며 머리 아픈 짓 하지 말고 좋은 놈으로 골라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야 현다. 암, 그래야지. 그렇고 말고.”

입버릇처럼 하시는 아버지의 당부가 언젠가부터 든든함으로 자리 잡고 있어요.

아버지에게서는 늘 비릿한 냄새가 났어요. 저는 그 비릿한 냄새가 역겨워 곱창은 입에 대지도 않았고, 아버지 곁에도 자주 가지 않았어요. 매일 아침, 식당 한 쪽에 쭈그리고 앉아 곱창을 손질하는 뒷모습은 마치 웅크린 사자 같았어요.

고무장갑을 끼면 답답하다며 추운 겨울에도 맨 손으로 곱창을 손질하느라 아버지의 두 손은 빨갛게 볼어 있었어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저는 아버지가 마치 저와 상관없는 사람인 것처럼 무심하게 지냈어요.

대신 두 살 터울인 혁이가 제 몫을 대신했죠. 특하면 식당에 나와 잔심부름을 하고, 미주알 고주알 이야기를 나누기도 하고, 다른 무엇보다 곱창을 잘 먹었어요. 아버지가 만든 곱창이 제일이라며 너스레를 떠는 혁이를 보며 저는 틀림없이 혁이가 아버지의 식당을 물려받을 것이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저는 하루라도 빨리 아버지로 부터 벗어나 근사하게 살 것이라는 치기어린 결심을 하곤 했었어요. 하지만 만만치 않은 세상은 저에게 그런 삶을 허락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혁이는 기술이 있어 식당일과는 무관한 생활로 자리를 잡고

살아가는데 저는 그렇지 못했어요.

결혼을 하고 가장이 되어 꾸려가는 생활도 쉽지만은 않았어요. 다른 무엇보다 전문적인 배움이 없었던 터라 회사에 들어가서도 몇 년을 버티지 못했어요, 그렇게 여러 회사를 전전하면서 저는 자신의 모습이 점점 작아지는 것을 느꼈고 결국 저는 아내와 아이들을 데리고 아버지를 찾았어요.

“워퍼겠다. 자리 잡을 때까지 내 일 좀 도와라. 나도 이제는 일이 힘에 부쳐서 힘들었는데. 잘 되었어야. 널 부터는 곱창손질을 니가 혀라.”

그날부터 저는 아버지 식당에서 아버지가 손질하던 곱창을, 아버지 처럼 쭈그리고 앉아 손질해야 했어요. 그리고 어거지로 곱창도 먹게 되었고 손님을 상대하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예전에는 죽기보다 싫었던 이 모든 일들이 언젠가부터 자연스럽게 받아드려진다는 것이었어요. 마치 오래전부터 해왔던 것처럼.

“그래, 민아, 잘 했다. 아버지 잘 모셔라. 네 아버지가 그래도 이 동네에서는 터줏 대감 아니냐. 아버지가 하던 일을 대를 물려하는 것도 좋아. 네 아버지는 자식들한테는 식당 일하지 않게 한다고 했지만 말이다. 식당일이라는 게 워낙 힘들어야지. 그래도 네 아버지는 좋은 일 많이 하고 있어. 저 윗동네에 있는 양로원에도 평생 다달이 돈을 주고 있잖냐. ....”

김씨 아저씨의 말씀을 들으며 저는 가슴이 먹먹해지는 것을 느꼈어요. 배운 것이 없어서,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식당을 시작했던 아버지, 정작 당신은 그 흔한 여행 한 번 다녀오지 못한 채 평생을 곱창 주무르는 일을 하면서도 다른 이들과 함께 하는 삶을 사셨던 거예요.

이제 그 모든 것을 제가 대신하고 있어요. 비록 지금 아버지는 곁에 계시지 않지만 저는 아버지가 이 식당에서 누렸던 소소한 즐거움을 누리며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어요. 윗동네에 있던 양로원이 지방으로 이사를 가는 바람에 자주 들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가 아버지의 손길을 대신하고 있답니다.

그리고 깨닫게 됩니다. 제가 대신 하는 게 아니라 아버지의 슬픔이, 기쁨이, 즐거움이, 힘겨움이 다른 누가 아닌 저의 몫이라는 것, 그래서 아버지의 삶이 바로 제 삶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 삶은 다른 누구의 삶보다 훌륭했다는 것도.

오늘 저녁에는 일찍 식당 문을 닫고 아버지와 함께 오랜만에, 실로 오랜만에 술 한 잔 해야겠어요. 제가 만든 맛있는 곱창을 안주로만 들어 아버지께 한 잔 올리며.

# 단팥빵

...

## 정유준



오늘도 습관처럼  
어머니의 단골 빵집에 들러  
생전 좋아하시던 단팥빵을 삽니다.

달콤한 팥 향이  
당신이 쓰시던 방 안에 퍼지고  
내 마음도 울렁거립니다.

그 향기에  
모정이 묻어나는 듯하고  
고요히 저녁 하늘을 바라봅니다.

창 밖 가을비는  
빵 반죽을 촉촉히 적시는 듯  
그리운 손길처럼 느껴집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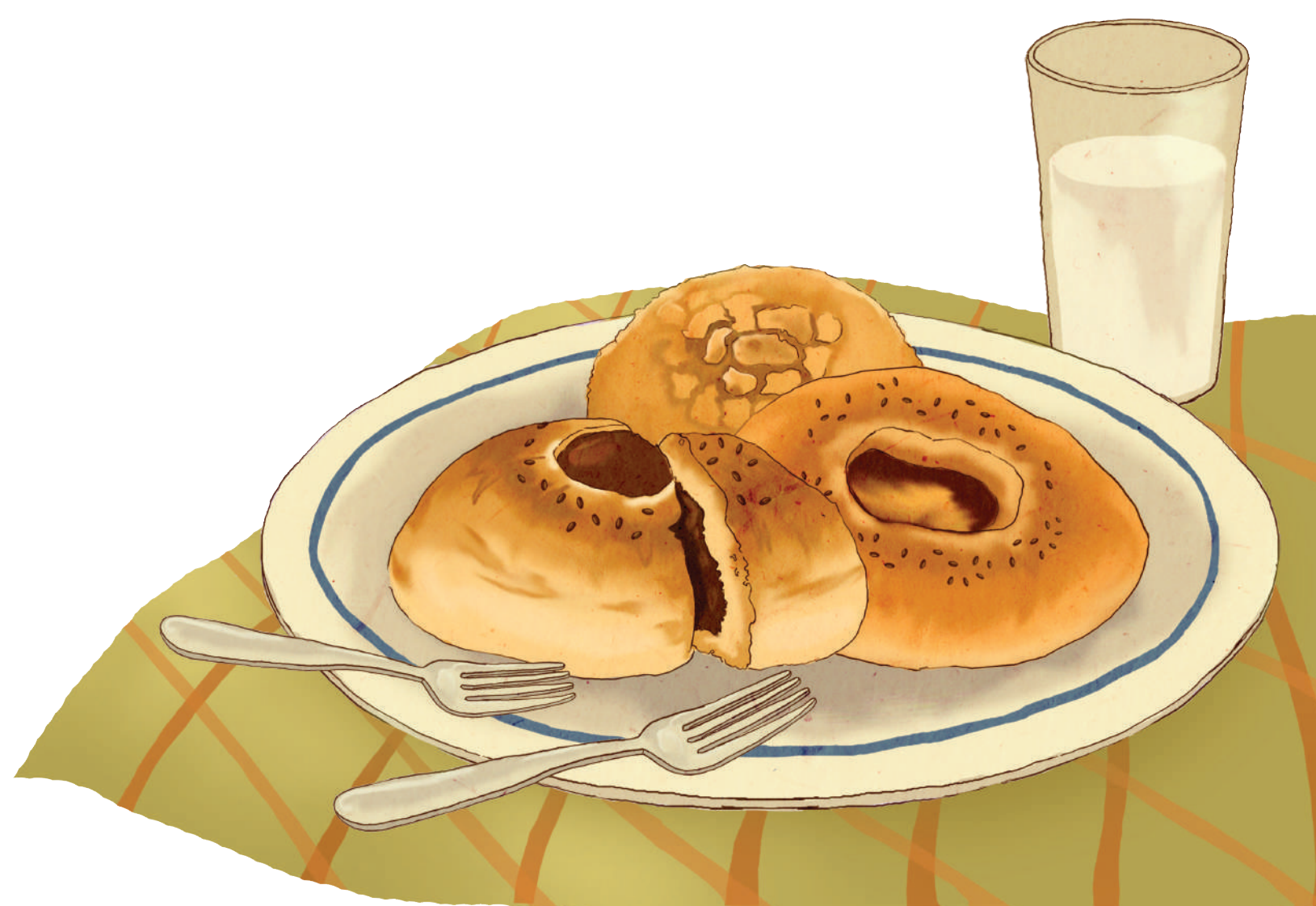
단팥 설탕 입자는  
당신의 모습처럼  
내 안에 눈물로 녹아내립니다.

달콤함보다  
그리움이 먼저 다가와  
가슴 깊숙이 번집니다.

한 입 베어먹던 빵  
당신의 미소  
행복했던 시간들이 떠오릅니다.  
아직 따스한 단팥빵 속  
오늘도 당신의  
온기가 그립습니다.

빵 봉지에 조용히 서린  
이슬방울들처럼  
빗방울도 고요히 흐릅니다.

아무리 멀리 가셔도  
당신은 가슴에 머무르고  
단팥 향기는 당신을 부릅니다.



# 망자의 고백

...

잠 깨 영



잠시 왔다  
한 줌의 재로 가는 것을.

천년만년 살 줄 알고  
움켜쥐던 손 펼치니  
이렇게 편한 것을  
왜 바둥바둥 몸부림쳤을까?

이제는  
들꽃 되련다.

넓은 땅 차지하려  
다투지도 않고  
내 한 몸 설 곳 있음에  
감사하는 들꽃되어

시샘도  
미움도  
교만도  
다 내려놓고

바람 한 올 잡고 놀련다.  
이슬 한 점 먹으련다.  
슬퍼하지 마라.

내 생각나거든  
욕심부리지 말고  
들꽃처럼 살거라.  
이 땅에 남긴 유언이라 생각하고.....

